

---

유니크함을 친숙함 위에 더하라는 개념이  
아주 유용하네요.

그렇지? 유용한 개념이니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도표를 보며  
함께 정리해보자.

외국인에게 서울을 설명하기 위해 누구나 알 법한 도쿄를 디  
딤돌로 삼았지.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착개념 속에 도쿄  
는 어떤 곳이지? 이국적인 아시아의 도시. 그래서 “서울은 도쿄  
[디딤돌]와 같이 이국적인[POP] 아시아의 도시[카테고리]인  
데, 훨씬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[POD]”라고 말해주면, 서  
울에 대한 감을 잡을 거야.

“후는 설화수[디딤돌] 같은 거예요.” 설화수의 고착개념은  
뭐야? 한방[POP] 화장품[카테고리]. 후는 뭐가 다르지? “한방  
화장품 중에서도 궁중[POD]에서 쓸 법한 고급 한방화장품이  
랍니다.”